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쾨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1열왕 19,16-19-21

제2독서: 갈라 5,1.13-18

복음: 루카 9,51-62

가톨릭 성가

입당: 19

봉헌: 206

성체: 151

파견: 445

◆ 화답송



(후렴)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 시읍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어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나중에’ 는 안 하겠다는 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 그는 말한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루카 9,59)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려 왔다. 그 역시 말한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루카 9, 61)

불치의 질병 중, ‘나중 병’이 있다. 나중에, 다음번에,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지금은 말고, 조금 후에 등등. 생각해 보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대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일들, 그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산되는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할래,
 이번 학기까지는 놀고서 다음 학기부터 공부해야지,
 지금은 말고 나중에, 다음번부터.
 다음에는 또 다음이 있다고 유혹받을 것이다.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속을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을 원하신다! ♠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응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민병택 베드로	가족
김용각	박명심 모니카
이성범 안드레아	엄기섭, 김한숙, 경원유
이태묘, 이영우	이상홍 스테파노
강주옥 소피아, 박순희 사비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해봉, 김말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신옥 발렌티나	윤석호 스테파노
강석중, 김두이 도로테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생미사	본당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선명희 노아
양미숙 마리아 가족	황인자 헬레나
황필은 가브리엘라, 황녹영 가족	임노엘 루카
임유진 라자로	구 벨라데타
구 이시도로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6월 30일	이영로 울리안나	정동주 유스토	이경자 울리안나	신혜정 소화데레사	김애희 테클라	정봉애 김신옥	김진섭 오윤서	김성중 신윤길 채미재 신정묵 신애송 이영근 채봉석 이경숙
7월 7일	주세정 레이첼	김호겸 아우구스티노	정유진 콘술시아	한채희 로사	진달래 아가타	이경자(벨) 황인자	한창희 황예슬	유기호 김영숙 이지훈 이지연 유정옥 장혜윤 이정현 진문자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포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KO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의 길 & 성체 조배**가 매월 첫째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아래 성당에서 있습니다.

➢ **7월 친교실 봉사**는 성모회, 요셉회입니다.

➢ **요셉회, 성모회**가 야외 행사를 합니다. 오늘 미사 후 출발하며 장소는 Tallman State Park입니다.

◆ 공 지 사 항

➢ 7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방학)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21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미국본당 175주년 기념행사

St. Francis 성당의 175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책자 편찬에 교우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 전면광고(칼라) \$500 / 1/2페이지(칼라) \$300
1/4(칼라) \$200

<기부자 리스트> : 개인 혹은 가족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실어드립니다(\$50).

마감 : 2019년 8월 1일

➢ 제 37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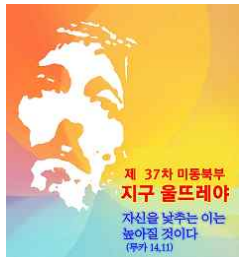
일시 : 7월 4일 9:30am ~ 4:00pm
장소 : 데마레스트 성당 (573 Piermont Road Demarest, NJ)

^ 참가비는 없습니다.

점심과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 일반 신자분들의 참가문의는 울뜨레아 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당 울뜨레아 '맨울짱'이 행사 2부 '우정의 무대'에 함께 합니다.



제 37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아
자신을 낳추는 이는 돌아질 것이다 (루카 14.11)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덩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종락>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가지 않은 길>에서 발췌, 로버트 프로스트

➢ 청년 성가대 성가대 단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청년 성가대 반주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과 함께 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stfrancisks@gmail.com)

➢ 미동북부 성령 대회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마태 9,29)

일시 : 7월 20일(토) 9am~9pm, 21일(주일) 9am~5:30pm

장소 : Felician University / 262 S.Main St.Lodi, NJ 07644

참가비 : \$40(토요일 점심, 저녁 / 주일 점심 포함) /

모든 참가자분들께 대회 강의녹음 USB 1개 증정

신청마감일 : 본당 성령기도회에 7월 14일(주일)까지

주최 : 미동북부 성령채신 봉사자 협의회

문의 : 이은경 헬렌(917.921.9619)

➢ 제 30차 메주고리에 유스 페스티벌

기간 : 2019년 7월29일~8월7일(9박10일)

참가경비 : \$980+항공료

문의 : 박민재 아그네스(646.808.7322)

➢ 재속 프란치스코 뉴욕 한국순교자 형제회 회원 모집

기한 : 오늘까지 / 문의 : 조남록 미카엘(347.276.0163)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2,720
감사헌금	\$ 400
합 계	\$ 3,120



❖ 교무금 :

임노엘 백승훈 강혜숙 오미숙 이경숙 정제임스
배인순 표해심 정봉애 박정자 이정진 김승한

❖ 감사헌금 :

백승훈 강혜숙 이종환 박정자

❖ 꽃봉헌 : \$20 노혜영

"성경 맛들이기" - 예언서 입문

이스라엘의 예언칙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물려받은 전통을 지속시켜 나감은 물론 8세기-4세기 사이에 이를 발전시켜 후기 유대교(Judaism)에 계승시켜 준 인물들이다. 특히 이들은 모세 시대에 이미 확립된 윤리적 유일신 사상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느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정의와 율법준수를 명하시는 정의의 하느님이다-에 충실했으며, 이 사상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갔다.

1. 예언자

1) 명칭과 어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언자(豫言者)라는 명칭은 '미래를 말하는 자'로서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분의 '대변인' 또는 '사자'(使者)로서의 예언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전하는 말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결코 미래에 관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2) 구분

(1) 초기 예언자들

12-10세기의 예언자들로서 바알숭배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야훼 하느님 신앙을 선포한 사람들이다. 외적인 면에서 이들 예언자들의 모습이 고대 근동지방 특히 페니키아 지방 예언자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은 사실이나(1사무 10,5-6), 이 독특한 운동을 야훼 신앙운동으로 끌어 올렸다는 데 이들의 업적이 있다.

(2) 예언자들의 아들들

이 명칭은 쟁미적인 표현법으로서 예언집단 구성원을 의미한다. 대략 9세기경부터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등장, 이러 저러한 성소들(길갈, 베텔, 예리코 등) 주위에서 집단을 이루어 예언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이다. 선대 예언자들과는 달리 광적인 행동을 지양하면서 활동하지만 이들 역시 야훼 신앙의 수호자 내지 선봉자들이다. 대표적 예언자들로서 엘리야(1열왕 18,22 ; 19,10,14)와 엘리사(2열왕 2,3,15 ; 9,1-3)가 있다.

(3) 제도적 예언자들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없는 예언자들이다. 왕궁에 또는 그 주변에 거하면서 왕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달했던 예언자들로서 다윗 시대의 나탄과 가드를 그 시조로 볼 수 있다. 국사결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으나(2열왕 23,2 ; 예레 18,18), 직위남용이 불씨가 되어 종종 "거짓 예언자"로 비난받기도 한다(아모 7,14; 예레 28).

이 제도는 끝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즈카 13,1-6).

(4) 예언 - 집필자들

8세기의 대표적 예언자 아모스를 기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예언자들로서 독자적으로 예언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서 가운데 일부를 직접 글로 남긴 사람들이다. 본격적인 예언문학 운동은 바로 이들에 의해 시작된다. 또한 구약성경에서 예언서라고 할 때는 흔히 이들의 작품을 두고 말한다.

시대별로 예언자들을 구분해 보면:

유배 이전

8세기 :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1-39장), 미카

7세기~6세기 초엽 : 스바니야, 나훔, 하바쿱, 예레미야

유배시대(587-537) : 에제키엘, 제2이사야(40-55장)

유배 이후

6세기 말엽 : 제3 이사야(56-66), 하카이, 즈카르야(1-8장)

5세기 : 말라키, 오바드야, 요나

4세기 : 요엘, 제2 즈카르야(9-14)

2. 예언서

1) 문학유형

- 신탁(神託) :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엄숙한 선포.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야훼다" 또는 "너희들은 내가 야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로 시작되거나 끝맺음한다.
- 훈계 : 설교자로서의 예언자 모습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문학유형(아모 5,4-5 ; 스바 2,3).
- 자서전 : 영적 체험이나 자기생애의 주요사건들을 1인칭으로 기술한 문학유형 (이사 6장 ; 예레 1,4-10 ; 호세 3,1-4)
- 서사체 전기 : 아모 7,10 ; 예레 26-29 ; 32-45.
- 찬미가 : 호세 6,1-6 ; 예레 14 ; 이사 42,10-13.
- 고백 : 이사 53,1-9 ; 예레 11,18-12,6 ; 15,10-21 ; 18,18-23 ; 20,7-8.
- 독설과 위협 : 아모 1,3-2,16 ; 호세 7,8-16 ; 이사 5,8-25 ; 예레 7,16-20.
- 풍자적 비유 : 예제 17,2-24 ; 19,2-14 ; 23,2-36.
- 상징적 행위와 삶 : 예언자들은 가끔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몸짓으로 표시하기도 하며, 상당한 경우 삶 그 자체를 통하여 말하기도 한다(1열왕 11,29-40 ; 예레 13,1-9 ; 호세 1-3 ; 예제 24,15-27).

2) 구성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또는 이미 글로 옮겨져 있던 예언자들의 설교내용과 생애 등이 제자들에게 의해 보존, 결국 하나의 예언서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요소들이 삽입되거나 수정, 보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예언서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생성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작품이므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해 곤란한 부분, 문맥의 단절, 어색함 등은 오히려 당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이다.